

## 삽화가 곁들여진 라루스 소사전

Le Petit Larousse illustré

2008, 2007, CVIII+1812, 15.5 × 23.5cm,

Paris: Librairie Larousse

홍재성 | 서울대학교 불어불문학과/인지과학 협동과정

프랑스(어) 사전 하면 라루스(Larousse) 사전이나 로베르(Robert) 사전을 떠올리게 된다. 라루스와 로베르는 모두 19~20세기 프랑스 사전편찬사의 두 거목이자 이들이 설립한 출판사의 이름이기도 하다.<sup>1)</sup> 현 프랑스 출판계에서 쌍벽을 이루는 이 두 사전 전문 출판사는 높은 수준의 다양한 사전을 지속적으로 개발·출판하여 ‘사전의 나라’로서의 프랑스의 이미지를 확고히 하는 데에 크게 기여해 왔다. 프랑스의 일반 대중이나 외국의 프랑스어 학습자 또는 프랑스 연구자들에게 가장 널리 알려져 있는 대표적인 두 사전이 라루스사의 *Petit Larousse*와 로베르사의 *Petit Robert*라고 할 수 있다. 2008년

1) 전직 교사였던 피에르 라루스(Pierre Larousse, 1817~1875)는 18세기 계몽주의 정신을 계승하는 반교권주의적 온건 공화주의자로 교육과 지식의 보급을 통해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시키고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1852년 라루스 출판사를 설립하고, 심혈을 기울여 19세기의 기념비적 일반 백과사전 *Grand Dictionnaire Universel du XIX<sup>e</sup> siècle*(1866~1876, 총15권)을 편찬하였다. 농학박사인 폴 로베르(Paul Robert, 1910~1980)는 20세기 대표적 프랑스어 대사전의 하나인 *Dictionnaire alphabétique et analogique de la langue française*(전6권, 1953~1964)를 편찬하고, 대사전의 축소판이 아닌 단권의 새 사전 *Le Petit Robert*(1967년) 간행을 주도하였다.

도 판의 정확한 제목은 각각 *Le Petit Larousse illustré*(이하 PLI로 약칭)와 *Le Nouveau Petit Robert de la langue française*(로베르 프랑스어 새 소사전, 이하 PR로 약칭)이다. 이 둘은 ‘소사전’이라는 지칭에도 불구하고,<sup>2)</sup> 흔히 단권 또는 두 권으로 출간되는 한국의 대사전 못지않게 대단히 풍부하고 다양한 정보를 압축해서 수록한 사전으로, 여러 면에서 대조가 되면서 상호 보완적인, 고급 프랑스어 학습자/프랑스(어) 연구자들에게는 필수적인 참고서적이라 할 수 있다.

PLI는 프랑스의 일반 백과사전의 전통을 계승하는, 백과사전과 언어사전의 혼합형 사전이고, PR는 리트레(Littre)<sup>3)</sup> 사전과 맥이 닿아 있는 비교적 전통적인 순수 언어사전이기 때문에 사전 텍스트의 구성이나 정보의 표상방식, 내용면에서 기본적으로 상당한 차이가 있으나 두 사전의 언어기술 부분을 정밀하게 비교·대조해 보는 것은 매우 흥미 있는 사전학적(metalexigraphic)<sup>4)</sup> 연구 작업이 될 것이다.

이 자리에서는 PLI만 그 특징적 면모를 중심으로 간략히 소개해 보고자 한다. PLI는 Larousse사에서 1905년 7월에 1906년 판으로 단권의 휴대용(12.5×19cm) 백과사전/언어사전의 혼합형 사전으로 간행되었다. 초판 이래 원칙적

으로 매년 부분적으로 수정·보완된 개정판이 출간되어, 현재 2007년 여름에 인쇄된 정확히 103판째인 2008년판이 나와 있다. 이 사전은 1905년 출간 당시 10만 부가 4개월 만에 매진되었고, 초판이 전부 20만 부가 판매된 것으로 기록이 남아 있다(당시 프랑스 인구는 약 4,100만 명이었다). 출판물로서의 이 사전의 상업적 성공은 대단해서 1990년/1999년 조사에 의하면, 프랑스 가구의 80% 정도가 PLI를 비치하고 있으며, 1999년에는 170만 부 판매로 출판물 베스트셀러 1위를 기록하더니, 새천년 기념판인 2000년도 판은 프랑스 국내외에서 200만 부 판매기록을 세웠고, 그 이후 매년 평균 국내 50만 부, 해외 20만 부가 판매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1990년 프랑스 출판사 알뱅 미셸(Albin Michel)사에서는 프랑스의 창의적 발명품 365개를 선정한 바가 있는데, Vache qui rit(어린이들이 좋아하는 크림 치즈, Crème de gruyère의 상품명으로 ‘웃는 암소’의 의미이다)나 Tour de France(프랑스 일주 자전거 대회), Lagarde et Michard(고교생용 프랑스 문학 교과서) 등과 함께 PLI가 그 목록에 수록되었고, 1999년 파리 시내 9개 지하철역에서 파리 지하철 개통 100주년을 기념하여 20세기와 21세기를 이어주는 프랑스 문화유산의 상징물 전시회가 열렸을 때, PLI도 전시물의 하나로 선정이 되기도 했다.

PLI는 1906년 초판 이래 표제어 총체로서의 거시구조의 구성(표제어의 선별, 지위) 및 미시구조와 그 내용(표제어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기술한 항목의 구성과 내용·다의어의 의미구별, 구별되는 의미의 풀이, 용례 등등)은 크기, 제목, 표지에서부터 다양한 도상자료(삽화, 복제사진, 도표, 지도 등등), 부록에 이르기까지 사전 text의 모든 면에서 지속적인 개신과 변모를 겪고 오늘날 100년이 넘는 산 역사를 뒤로 한 *Le Petit Larousse illustré 2008*에 이르렀다.<sup>5)</sup> 이제 PLI

2) 소 petit 사전이라는 지칭은 대체로 프랑스 사전 출판의 지배적 관행이 여러 권의 탁상용 대사전 편찬이었던 관계로, 이와 대조되는 단권의 휴대용 사전이라는 의미에서 붙여진 것으로 짐작된다.  
3) 열렬한 실증주의 철학의 신봉자이며 의사, 문헌학자였던 에밀 리트레(Emile Littré, 1801~1881)는 17~18세기의 다양한 텍스트에서 풍부하게 인용한 용례들을 바탕으로 고전주의 시대 불어 어휘를 철저하게 기술한 *Dictionnaire de la langue française*(전4권+증보 1권, 1863~1873)를 편찬함으로써 프랑스 사전편찬사에 깊은 족적을 남겼다.  
4) 현재 사전 관련 연구 영역은 다음과 같이 세 하위 영역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i) 산출된 출판물/책—이는 기본적으로 제조물과 텍스트의 양면성을 지닌 대상이다—으로서의 사전에 대한 다양한 학제적인 학술적 연구나 이론적 탐구를 다루는 사전학 metalexigraphy;  
ii) 사전편찬에 기여하고, 그것을 지향하는 어휘연구, 어휘자원의 구축·처리 연구인 lexicography;  
iii) 사전이라는 출판물의 출간을 목표로 하는 구체적인 실천적인 여러 작업과 이에 필요한 지식을 체계화하는 사전편찬론(프랑스어로는 dictionnaire).  
5) 초판 이후 1924년 개정판까지는 두드러진 변화는 없었으나, 연차적 보완과 병행해서 대체로 10년 정도 주기로 큰 규모의 개정을 단행하였다. 주요 개정판은 1935, 1948, 1959, 1968, 1981, 1989,

는, 동일한 종류의 포도주를 생산연도에 따라 구분하듯이 매년 개정판을 천 자리 수의 출간연도로 구별하는, 프랑스의 대표적 문화품목의 하나로 자리 잡게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전자사전이 종이사전을 대체해 가는 다매체/전자매체에 의한 정보 소통의 시대에도 PLI가 보여 주는 종이사전으로서의 성공은 프랑스 사회의 특이한 문화현상의 한 측면으로 분석이 될 만하다고 하겠다.<sup>6)</sup>

프랑스에서의 사전에 대한 관심과 애착은 오래된 전통을 갖고 있다. 사전(dictionnaire)이라는 지칭을 제목에 포함하고, 프랑스 단어가 표제어로 선별되어 기술된 최초의 근대적 의미의 사전<sup>7)</sup>이 1539년 출간된 이래 1863년까지 약 3,000종의 사전—개정판을 포함하면 1만 종 이상—이 출판되었다는 조사가 있는데, 그 이후 현재까지 140여 년 사이에는 그 몇 배의 다양하기한 사전이 편찬되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라루스사 사전과 관련해서, 사전의 소비·유통에 대한 한두 가지 통계자료를 더 소개해 본다면, PLI 간행 당시 그 전신이자 모형이 되었던 *Nouveau dictionnaire de la langue française*는 출판사 설립과 동시에 출간되었는데, 1905년까지 500만 부가 판매되었고, PLI는 1965년까지 60년간 3천만 부가 팔린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

PLI 2008 텍스트의 기본적 구성은 1906년도 초판과 대체로 동일하다. 총 1,812쪽의 본 텍스트는 두 부분으로 나뉘어 있다. 전반부는 상당수의 전문어를 포함한 보통명사를 비롯한 일반어휘 5만 9,000 표제어가 거시구조를 구성하면서 백과사전적 성격이 두드러진 언어사전편을 이루고 있으며, 후반부는

28,000항목의 인명, 지명 중심 고유명사사전으로 구성되어 있다. 3단으로 인쇄된 전/후반부의 본 텍스트를 가르는 것은, 초판과 마찬가지로 라틴어, 그리스 및 기타 외래어 관용표현, 사용 빈도가 높은 속담, 격언, 그리고 자주 인용되는 역사적인 명구 등에 대한 풀이를 담은 16쪽의 분홍색 부 텍스트이다. 본 텍스트 전후에, 서문과 편찬진 소개 자료 이외에 프랑스어 문법 개요, 약자/약호(전문어 영역 표시 약간 포함), 일람, 세계사 연표, 다양한 부록—역대 노벨상 수상자, 르 문학상 수상자, 주요 영화제 대상 수상작, 프랑스 및 주변 프랑스어 사용 국가의 행정 지도 등—과 2000년도 판 이후 매년 주제를 바꾸어 실리는 특별 색채도판 8쪽이 부 텍스트로 첨부되어 있고, 본 텍스트에 통합되어 있는 5,000개의 사진, 삽화, 도상자료와 도표 및 총 321개의 지도(1992년도 판 이후 모든 도상 자료는 색채 인쇄)가 백과사전으로서의 기능성을 높이기 위한 정밀·정확하고 효과적인 시각 자료로 제시되어 있다.

다양하고 풍부한 도해 자료는 초판 이래 PLI 텍스트의 특징적이고 핵심적인 구성 요소였다. 인쇄기술의 발전이 뒷받침된 1세기 간의 지식의 확장과 심화와 아울러 지속적 보정·개선의 결과인 2008년 판의 도상학(iconography), 즉 도상 자료의 유형, 선별 양상과 원칙, 정보성, 시각기호학적 특징과 기능 등의 총체는 간결·명료한 표현으로 방대하고 풍요로운 정보를 압축적으로 담고 있는 백과사전적 항목 기술과 긴밀히 통합되어 단권의 대중적 사전으로서의 사전출판계의 선망의 대상이자 전범이 될 수 있는 뛰어난 성취로 읽혀진다.

그러나 이러한 평가는, PLI가 타자성에 대한 이해나 관용에 있어 다른 사전 text에 비해 상대적으로 진취적 태도를 취하고, 점진적으로 프랑스 중심주의, 유럽중심주의에서 탈피한 지식과 언어의 표상을 추구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현금 프랑스 사회의 지배적 관심사나 이해관계에서 근본적으로 벗어난 text는 아니라는 점을 전제해야 한다. 이러한 측면은, 한국에 관련된 항

1998판 등이다.

6) PLI는 1930년대 5년간의 작업 끝에 20권 분량의 점자판이 출간되었고, 1996년에는 CD-ROM판이 개발되었다.  
7) 지식인 인쇄·출판업자인 로베르 에티엔(Robert Estienne)이 간행한 프랑스어·라틴어 2개어사전(Dictionnaire françois-latin).

목이 언어적으로나 백과사전적 지식의 표상면에서 어떻게 처리되어 있는지를 중국이나 일본 관련 항목의 기술과 대조해 보면 너무나 자명하게 드러난다. 프랑스 국내의 대중적 지식의 소통 면에서 한국이 지극히 미미한 주변적 영역에 불과한 것임은—1950년대판/1960년대판/1980년대판을 2000년대판과 대조해 보면, 기술된 정보의 양이나 정확성, 최신성에 있어 명백한 변화가 있기는 하지만—PLI 텍스트(text)를 통해 새롭게 확인되는 사실도 아닐 것이다.

PLI의 언어사전 부분은 라루스사의 사전편찬 전통을 잇는 공시적 기술 우위의 메타언어적 텍스트이다. 피에르 라루스가 사전편찬 작업에 매진하던 19세기 중·후반 학계의 언어 연구는 이른바 역사·비교 언어학이 지배적이었으나, 그는 언어교육자의 입장에서 언어사전을 교육자료/학습참고서로—현대적인 사전 유형론의 시각에서는 학습사전—개발하였기에, 당대의 어휘 사용 양상 기술을 외면하고 역사주의적 관점을 우위에 두었던 Littré 사전을 비판하였다. 피에르 라루스의 19세기 일반백과사전의 언어사전 부분 역시 이와 같은 시각에서 기술된 것이었다.

PLI의 성격은 통시적 정보의 제한적 표상—homme(인간: 성인남자)나 terre(지구: 땅)와 같은 핵심적인 단일어와 karaoké 같은 외래어에 국한한 어원정보 제시—, 표제어의 분할 배열 dégroupement—동일한 어원어에서 유래되었으나, 공시적 시각에서 두 용법에 대응되는 의미/언어적 행태가 서로 상관짓기가 어려울 정도로 차이가 질 때, 두 표제어로 분할하여 처리하는 사전 기술의 방법론—방식 활용,<sup>8)</sup> 다의어 의미 구분과 배열에 있어 역사적 변화의 차원 배제, 용례 인용에 있어 사전 편찬자에 의해 구성·작성된 예구, 예문의 사용 등에 의해 잘 드러나고 있다. PR과 같은 순수 언어사전이 아니

8) PR은 모두 단일 표제어로 기술한 état, maître를 PLI는 세 표제어로 분할 처리하고 있다.

기에 항목 기술의 대상이 되는 언어 정보의 유형과 양은 대단히 제한적으로 선별·조절되어 있다. 발음 표시는 monsieur, femme과 같이 발음과 표기의 대응이 불규칙적인 표제어나 taekwondo(태권도) 같은 외래어에 제한되고, 문법 정보나 용법이 상세하고 다양하게 기술되어 있지는 않다. 또한 dé(s), re-와 같은 접사나 mono-, igni-, -cole처럼 합성어를 구성하는 어근적 요소 등은 표제어화 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PLI가 현대 프랑스 어휘의 어느 정도 총체적 모습을 보여 주는 단권의 대중적 언어사전으로 기능하기에도 불충분한 측면이 있기는 하지만, 핵심적 어휘의 의미와 용법을 제한된 인쇄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여, 간결·명료하고 정확하고 안정적으로 풀이하고 기술한 점은 탄탄한 사전 텍스트 작성의 전통을, 독특한 메타언어적 담화 구성의 전통을 잘 보여 준다고 하겠다.

그러나 PLI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거시 구조의 구성 요소인 표제어의 선별이나 미시 구조 내의 정보 표상—특히 새로운 의미와 그 정의—의 면에서 지속적·규칙적으로 부분적 개정을 통해 어휘 차원에서 언어가 변모해 가는 모습, 어휘가 반영하는 사회·문화의 변화, 또 그 변모가 언어 사용자들에 의해 수용되어 가는 양상을 적확하게 포착하여 표현하는 점일 것이다. 편찬진이 제시하는 자료에 의하면, 2008년 판에도 100여 항목 정도가 새로이 추가되거나 수정되고, 네댓 개의 표제어가 제되었다. 예컨대 blockbuster, blogueur(블로거), géolocation(GPS를 활용하는 위치 추적 기술/시스템), GNV(차량용 압축 천연가스)을 비롯하여 30개 가량의 아프리카, 벨기에, 퀘벡, 스위스 등 프랑스 이외의 프랑스어 사용 지역의 신어나 새 의미가 새로이 수록되었다. 예컨대 descendre(내려가다)의 새 용법으로 아프리카 프랑스어에서의 ‘퇴근하다’의 의미가 추가되어 있다. 흥미 있는 것은, 직업, 직책, 직위 또는 행위자 명사의 여성형 표기화 추세를 연차적으로 반영하고 있는 점이다. 2008년

판에 새로이 도입된 표기 중 하나는 *préfacier/préfacière*(서문 집필자)이다. 2008년판에 기록된 최근의 변화를 보여 주는 두드러진 사례는 *professeur*(교수), *écrivain*(작가, 문필가), *auteur*(저자), *consul*(영사), *ingénieur*(전문기사, 하위직 연구원)의 처리이다. 이 다섯 단어는 2003년 판에서까지도 남성명사로만 표기되어 있었으나, 2008년 판에서는 남·여성 두 형태가 모두 가능한 명사로 기술되고 여성형이 각기 *professeure*, *écrivaine*, *auteure*, *consule*, *ingénieure*로 제시되어 있다.<sup>9)</sup>

전통적으로 남성이 독점적으로 수행하거나 점유해 온 직업·직책·직위명에 대한 여성형 표기화의 문제는 프랑스에서는 19세기 말부터 제기되어 왔다. 뒤늦게 1980년대에 정부 차원에서 공론화되었고, 중요한 제안, 권고안이 여럿 제출되어 있으나 아카데미 프랑세즈를 정점으로 하는 이 문제에 대한 강한 보수적 입장의 강세로 퀘백이나, 스위스, 벨기에 등 주요 프랑스어권 국가에 비하면 새로운 여성형 사용이 크게 확산되어 있지 못하고 통일적인 표준이 형성되어 있지 않다. 그러는 가운데 PLI가 위의 명사에 대해 여성형의 존재를 인정하고 표기형을 수록한 것은, 프랑스어의 변화를 반영하는 것일 뿐 아니라 이러한 변화에 대한 진보적인 태도를 명시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PLI도 1950년대 말까지는 성적 금기가 강하고 여성혐오적이고 여성차별적인 프랑스 사회의 단면을 반영하여, 예컨대 *femme* 항목 기술에서 프랑스 아카데미 사전<sup>10)</sup> 제6판(1835년 간행)에 기록된 정의인 ‘남자의 동반자’를 그대로 답습하면서 대단히 보수적인 태도를 유지해 온 것이 사실이다.

9) 그러나 *chef*는 여전히 남성명사로 표기되어 있다. 벨기에, 퀘백 프랑스어에서는 여성형을 수용하고 *une chef*로, 스위스 프랑스어에서는 *cheffe*로 표기한다.

10) Académie française는 1635년 창립 당시부터 프랑스어 사전 편찬을 핵심적 임무 중 하나로 정관에 규정하였으나, 60년 후인 1694년에야 두 권으로 사전 초판을 출간하였다. 그 이후 여러 번의 개정이 이루어졌는데, 1932년 제8판이 나왔고, 2000년에 제9판이 완간되었다. 프랑스 아카데미 사전은 순수주의적 언어관에 입각한 규범적·선별형 사전이다.

1959년, 1968년 개정판을 거치면서 프랑스 사회의 변화가 긍정적으로 표상되기 시작했다고 하겠다.<sup>11)</sup> 사전은 언어사전이라 할지라도 기본적으로는 언어의 실상과 변화를 기술하는 메타언어적 텍스트이면서 동시에, 언어와 언어가 표상하는 세계에 대한 관점과 태도를 반영하는 이데올로기적 텍스트이기도 한 것이다. 텍스트 분석 또는 비판적 담화 분석의 틀로 PLI 2008을 꼼꼼히 살펴본다면 현금의 프랑스 사회가 언어, 세계, 지식에 대해 취하는 입장과 태도의 중요한 일면이 드러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sup>12)</sup>

이와 같이 보면, PLI 2008은 프랑스 어휘와 이를 통해 표상되는 세계에 대한 최신의 지식을 전 해 주는 참고서적인 동시에, 그러한 정보가 유통되고 있는 프랑스 사회의 특징을 보여 주기도 하는 중요한 자료의 하나로 볼 수 있다.

더구나 초판부터 103판까지의 PLI의 총체는 지난 1세기 간의 프랑스 사회의 변모를 이해하기 위한 소중한 역사적 문헌이 될 수도 있으리라 여겨진다.

PLI 2008은 매우 매력적인 사전이고 책이다. 한국 사전편찬 및 출판계의 사정과 이면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는 필자로서는 한국에서는 가까운 시일에 이와 같은 사전이 출간되기는 대단히 어려우리라 판단되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 빨리 출판물/텍스트의 양면 모두에서 PLI를 전범으로 한, 여러 면에서 PLI에 비견할 만한 한국의 PLI가 출현했으면 하는 꿈을 접을 수는 없다. 상급 프랑스어 학습자는 프랑스 연구자들은 물론, 사전에 관심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PLI 2008을 한 번 자세히 살펴보기를 권하고 싶다.

11) *femme*의 정의가 ‘여성의 인간’으로 바뀐 것은 1959년판부터이고, *femme de parole*, *femme de lettres*와 같은 중요한 복합표현이 *femme* 항목에 인용되기 시작한 것은 1989년부터이다.

12) 정치·사회적으로, 이념적으로 민감한 개념을 매개하는 *civilisation*(문명), *colonie/colonialiser*(식민지/식민지화하다), *capitalisme*(자본주의), *socialisme*(사회주의), *Etat*(국가), *féminisme*(여성주의, 여권신장론), *lutte des classes*(계급투쟁) 등의 여러 항목이 어떻게 기술되고 구성되어 있는지를, 가령 PR와 비교해서 분석해 본다면 두 사전의 기저에 자리하고 있는 대조적인 이념적 성향이나 가치 체계를 확인할 수도 있다.

- Cormier, M. et Francoeur, A.(2005), sous la dir., *Les dictionnaires Larousse: Genèse et évolution*, Les Presses de l' Université de Montréal.
- Dictionnaires de langue française: tradition et innovation, 2002, *International Journal of Lexicography* 15-1.
- Pruvost, J.(2006), *Les dictionnaires français. Outils d'une langue et d'une culture*, Paris: Ophrys.
- Pruvost, J., sous la dir.(2002), *Pierre Larousse: Du Grand Dictionnaire au Petit Larousse*, Honoré Champion.